

延边大学朝鲜-韩国学学院现用教材

HANGUOWENXUEZUOPINXUANDU

韩国文学作品选读

한국문학작품선독

리민덕 편찬



이 책을 열독하다나면 쑥쑥 늘어나는 한국어실력이
스스로도 놀랍게 느껴질 것입니다.

延边大学朝鲜-韩国学学院现用教材

HANGUOWENXUEZUOPINXUANDU

韩国文学作品选读

한 국 문 학 작 품 선 독

리민덕 편찬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韩国文学作品选读: 朝鲜文 / 李敏德编著.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8. 7

ISBN 978-7-5389-1548-8

I. 韩… II. 李… III. 短篇小说—作品集—韩国—现代—
朝鲜语 IV. I312.64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8) 第 113924 号

书 名/ 韩国文学作品选读
编 著/ 李敏德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1-57364224
电子信箱/ hcxmz@126.com
责任编辑/ 金斗弼
责任校对/ 宋英爱
封面设计/ 咸成镐
印 刷/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880mm×1230mm 1/32
印 张/ 8.5
字 数/ 156 千字
版 次/ 2008 年 10 月第 1 版
印 次/ 2008 年 10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548-8 (民文)
定 价/ 20.00 元

머 리 말

《한국문학작품선독》은 대학교 한국어과 고급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연변대학 리민덕 교수가 다년간의 한국어교수실천 경험에 비추어 편찬한 열독교과서이다.

이 《한국문학작품선독》은 학생들의 한국어학습의 단계적인 제고를 목적으로 20세기 한국의 우수한 단편 소설가운데서 내용이며 편폭 그리고 예술성, 취미성, 교양성을 두루 고려하여 단편소설 10편을 추려서 한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이 교재의 편찬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의 문학작품을 섭렵하면서 한국의 현대문화와 생활습관을 요해하고 한국적인 것에 흥미를 갖게 함으로써 한국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학습자들의 열독과 자습의 편리를 위해 과문의 앞뒤에 각각 “작가와 작품세계” 및 “해석의 지평”이라는 설명을 주었고 모든 과문에 녹음 CD가 비치되어 고급적인 어학교재로

서도 나름대로의 남다른 특색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타민족 학생들이 한국의 언어문화에 더 확실하게 접근하면서 자신의 어학실력을 쌓아가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시간의 촉박과 수준의 미달로 말미암아 편집과정에 석연치 못한 점들이 있다는 것도 시인하면서 독자 여러분의 조언과 충고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8년 6월

편집자

차 례

머리말	1
제1과 배따라기	1
제2과 감자	27
제3과 물레방아	42
제4과 병어리 삼룡이	75
제5과 사랑 손님과 어머니	98
제6과 운수 좋은 날	140
제7과 백치 아다다	167
제8과 수난 이대	197
제9과 동백꽃	223
제10과 봄 봄	242

제1과 배따라기

김동인

작가와 작품세계

어려서 가슴속에 뿌리박힌 금동 김동인(琴童 金東仁 1900~1951)의 유아독존적 사고방식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예술이 생겨나는 요소를 ‘아무 사람에게도 가득 차 있는 애고이즘’ 즉, ‘자아주의’로부터 비롯된다고 20대 초에 주장했던 김동인은 한국 최초의 동인지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예술론을 작품으로 구체화했다.

금동 김동인은 1900년 기독교 장로이며 대지주인 김대윤의 차남으로 평양에서 출생하였다. 평양 승덕학교를 졸업하고 숭실학교 재학중 15세에 일본으로 유학, 도쿄학원 및 메이지학원 중학부를 거쳐 가와바다(川端) 미술학교에서 수학하였다. 메이지학원 재학 당시 차츰 문학에 경도되어 학생들끼리 내는 회람 잡지에 습작을 발표하기도 한 그는 1917년 부친이 별세하자 귀

국하였다가 결혼을 하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이듬해 가와바다 미술학교를 중퇴하였다.

1918년 말부터 동향이며 동년배인 유학생 전영택, 주요한 등과 함께 동인지 발간을 준비하여 1919년 2월 『창조』를 창간하였다. 김동인은 한국 최초의 순문예지인 『창조』를 통해 구체 문장의 확립, 구체적 문예운동의 전개, 근대 사실주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여기에 김동인은 「약한 자의 슬픔」을 발표하고 「마음이 열린 자여」와 한국근대소설사에서 본격적인 단편소설의 출발로 일컬어지는 「배따라기」를 발표하여 춘원 이광수에 이은 대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김동인은 출발부터, 계몽주의 문학과 문학의 공리성을 주장한 춘원에 대해 반기를 들고, 예술을 위한 문학과 문학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창조』 창간호에 발표한 처녀작 「약한 자의 슬픔」은 사실주의기법이 사용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배따라기」에서 그는 인간의 운명, 의지와 행동은 다른 외적인 힘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환경결정론’의 사상을 보여준다.

김동인은 1921년부터 그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당시의 작품은 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무렵부터 그의 생활은 기울기 시작했다. 오만한 성격과 방탕한 생활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1926년에는 수리사업(水利事業)에도 관여하였다가 실패하였으

며 부인마저 집을 나갔다. 이러한 어지러운 생활 속에서도 문학에 대한 집념은 여전하여 1924년에는 『창조』의 후신격인 『영대』지를 창간하고 「감자」(1925), 「명문」(1925), 「광염 소나타」(1930), 「붉은 산」(1932) 등을 발표하였다.

작품 「감자」는 ‘복녀’라는 한 순수했던 인물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정적 윤리관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개인적 비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사건마다 필연적 계기에 따른 점층적인 기법과 방언의 효용, 간결하고 냉철한 필치 등으로 김동인을 한국 단편소설 형식을 완성한 작가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 뒤에 발표한 「광염 소나타」나 「광화사」 등에는 일반 사회의 통념과 상식을 부정하고 환상적 분위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신의 영웅 숭배사상과 탐미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1930년 이후 김동인은 재혼도 하고 새 출발의 의욕을 보였으나 계속되는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렸다. 이 당시에 나온 역사물과 장편소설 등은 자신의 말대로 생활을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할 만큼 문학적 수준이 격하되었다. 1945년 광복을 맞아 새로운 거처에서 문필활동을 재개하였으나 뇌막염과 동맥경화증으로 자리에 누워 1951년 1월 5일 조선전쟁이 한창이었던 무렵 그는 생애를 쓸쓸히 마쳤다. 이때 그의 나이 51세, 한때 그와 상대적 입장에 있던 김팔봉도 “신문학에서 현대 소설이 자리

잡히기는 동인과 상섭의 소설이 나오고부터였다.”라고 평가하였다.

김동인이 한국 문학사에 남긴 공적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는 첫째, 이광수의 계몽주의적인 문학에 반기를 들고 문학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립 및 본격적인 단편 소설의 기틀을 확립했고, 둘째, 『창조』, 『영대』 등의 동인지를 창간하여 서구 문예 사조의 도입과 다양한 경향의 작품으로 그 실체를 보여주었고, 셋째, 문장에 있어서 삼인칭 대명사의 통일된 표기(그), 구어체 문장 확립, 과거시제사용의 혁신적인 문장 서술을 보여 주었다.

금동 김동인은 개인적인 비극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 문학의 선구자로 길이 기억될 작가라 할만하다.

작품 [배따라기]

나는 이년 전 한여름을 영유서 지내본 일이 있다. 배따라기의 본고장인 영유를 몇 달 있어 본 사람은 그 배따라기에 대하여 언제나 한 속절없는 애처로움을 깨달을 터이다.

영유, 이름은 모르지만, X산에 올라가서 내다보면 앞은 망망한 황해이니, 거기 저녁때의 경치를 한번 본 사람은 영구히 잊을 수가 없으리라. 불덩어리 같은 커다란 시빨건 해가 남실 남실 넘치는 바다에 도로 빠질 듯, 도로 솟아오를 듯 춤을 추며, 때때로 보이지 않는 배에서 배따라기만 슬프게 날아오는 것을 들을 때면 눈물 많은 나는 때때로 눈물을 흘렸다. 이로 보아서 어떤 원의 아내가 자기의 모든 영화를 낡은 신과 같이 내어 던지고, 뱃사람과 정처없는 물길을 떠났다 함도 믿지 못할 말이랄 수가 없다.

영유서 돌아온 뒤에도 그 배따라기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고, 언제 한번 다시 영유를 가서 그 노래를 한번 더 들어보고, 그 경치를 다시 한번 보고 싶

은 생각이 늘 떠나지를 앓았다.

장구 소리와 기생의 노래는 멋고, 배따라기만 슬프게 날아온다. 절절이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때때로는 들을 수가 없으되, 나의 기억과 곡조를 부합하여 들은 배따라기는 여기이다.

강변에 나왔다가
나를 보더니만,
혼비백산하여
꿈인지 생시인지,
생신지 꿈인지,
와락 달려들어
섬섬옥수로 붙여잡고
호천망극 하는 말이,
“하늘로서 떨어지며
땅으로서 솟아났다
바람결에 묻어 오고
구름길에에 켜여 왔다.”
이리저리 붙들고 울음 울 제,
인리 제인이며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

여기까지 들은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서 소나무 가지에 걸었던 모자를 내려 쓰고 그곳을 찾으려 모란봉 꼭대기에 올라섰다. 꼭대기는 좀더 노랫소리가 잘 들린다. 그는 배따라기의 맨 마지막, 여기를 부른다.

밥을 빌어서
죽을 쏘지라도
제발 덕분에
뱃놈 노릇은 하지 마라
에에야 어그여 지여.....

그의 소리로써 방향을 찾으려던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섰다.
“어딘가? 기자묘, 혹은 을밀대?”
그러나 나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든 찾아보자 하고 현무문으로 가서 문밖에 썩 나섰다.
기자묘의 깊은 솔밭은 눈앞에 짙 퍼진다.
“어딘가?”
나는 또 물어 보았다.
이때에 그는 또다시 배따라기를 첫번부터 부른다. 그 소리는 왼편에서 온다.
왼편이구나 하면서 소리나는 곳을 더듬어 소나무 틈으로 한

참 돌다가, 겨우 기차요 치고는 그중 하늘이 넓고 밝은 곳에, 혼자서 텅굴고 있는 그를 찾아내었다. 나의 생각한 바와 같은 얼굴이다. 얼굴, 코, 입, 눈, 몸집이 모두 네모나고…… 그의 이마의 굽은 주름살과 시커먼 눈썹은 고생 많이 함과 순진한 성격을 나타낸다.

그는 어떤 신사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노래를 그치고 일어나 앉는다.

“아니 왜? 그냥 하지요.”

하면서, 나는 그의 곁에 가 앉았다.

“머…….”

할 뿐, 그는 눈을 들어서 터진 하늘을 쳐다본다.

좋은 눈이었다. 바다의 넓고 큼이 유감없이 그의 눈에 나타나 있다. 그는 뱃사람이라 나는 짐작하였다.

“고향이 영유요?”

“예, 머 영유서 나기는 했지만 한 이십년 영유를 가 보지 두 않아시요.”

“왜, 이십년씩 고향엔 안 가요?”

“사람의 일이라니 마음대로 됩데까?”

그는 왜 그러는지 한숨을 짓는다.

“그저 운명이 제일 힘쌌디다.”

운명의 힘이 제일 세다는 그의 소리엔 삭이지 못할 원한과

뉘우침이 섞여 있다.

“그래요?”

나는 다만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한참 잠잠하니 있다가 나는 다시 말하였다.

“자, 노형의 경험담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감출 일이 아니면 한번 이야기해 보소.”

“뭘 감출 일은……”

“그럼 어디 한번 들어 봅시다 그려.”

그는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좀 있다가,

“하디요.”

하면서 내가 담배를 붙이는 것을 보고, 자기도 담배를 붙여 물고 이야기를 꺼낸다.

“십구년 전 팔월 열 하룻날 일인데요……”

하면서 그가 이야기한 바는 대략 이와 같은 것이다.

그가 살던 마을은 영유 고을서 한 이십리 떠나 있는 바다를 향한 조그만 동리이다. 그의 살던 그 조그만 마을(서른 집쯤 되는)에서 그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의 부모는 모두 열댓에 났을 때 없었고, 남은 친척이라고는 곁집에 판살림하는 그의 아우 부처와 자기 부처뿐이었다. 그들 형제가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이고, 또 제일 고기잡이를 잘 하였고, 그중 글이 있었고, 배따라기도 그 마을에선 빼나게

그 형제가 잘하였다. 말하자면 그 형제가 그 동리의 대표적 사람이었다.

팔월 보름은 추석 명절이다. 팔월 열 하룻날, 그는 명절에 쓸 장도 볼 겸 그의 아내가 늘 부러워하는 거울도 하나 사올 겸 장으로 향하였다.

“당손네 집에 있는 것보다 큰 것ियो, 낮지 말구요.”

그의 아내는 길까지 따라나오면서 잊지 않도록 부탁하였다.

“안 낮어.”

하면서 그는 떠오르는 새빨간 햇빛을 앞으로 받으면서 자기 마을을 나섰다.

그는 아내를 <이렇게 말하기는 우습지만 고마워했다.> 그의 아내는 <촌에는 드물게 연연하고도 예쁘게 생겼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성내(평양) 텐죽골을 가두 그만한 거 쉽진 않가요.”

그러니까 촌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에게 우습게 보이도록 그 부처의 사이는 좋았다. 늙은이들은 계집에게 혹하지 말라고 흔히 그에게 권고하였다.

부처의 사이는 좋았지만, 아니 오히려 좋으므로 그는 아내에게 시기를 많이 하였다. 품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는 대단히 쾌활한 성질로서 아무에게나 말 잘하고 애교를 잘 부렸다.

그 동리에서는 무슨 명절이나 되면, 집이 그중 깨끗함을 핑계삼아, 젊은이들은 모두 그의 집에 모이곤 하였다.

그 젊은이들은 모두 그의 아내에게 <아즈머니>라 부르고, 그의 아내는 아내대로 <아즈바니, 아즈바니> 하며 그들과 지껄이고 즐기며, 그 웃기 잘하는 입에는 늘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한편 구석에서 눈만 흘근거리며 있다가, 젊은이들이 돌아간 뒤에는 불문곡직하고 아내에게 덤벼들어, 발길로 차고 때리며 이전에 사다 주었던 것을 모두 거두어 올린다. 싸움을 할 때에는 언제나 결집 있는 아우 부처가 말리러 오며 그렇게 되면 언제나 그는 아우 부처까지 때려 주었다.

그가 아우에게 그렇게 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의 아우는 촌사람에게는 다시없도록 늙름한 위엄이 있었고, 맨날 바닷바람을 쐬었지만 얼굴이 희었다. 이것 뿐으로도 시기가 된다 하면 되지만, 특별히 아내가 그의 아우에게 친절히 하는 데는 그는 속상하여 못 견디었다.

그가 영유를 떠나기 반년 전쯤…… 다시 말하자면 그가 거울을 사러 장에 갈 때부터 반년 전쯤, 그의 생일날이었다. 그의 집에서는 음식을 차려서 잘 먹었는데 그에게는 한 버릇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은 남겨 두었다가 좀 있다 먹곤 하는 것을 예사로 하였다. 그의 아내도 그 버릇은 잘 알 터인데, 그의 아우가 점심때쯤 오니까 아까 그가 아껴서 남겨 두었던 그 음식